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

鄭閔喆 · 尹暢烈*

I. 緒 論

《內經》에서는 “사람이 天地와 더불어 相應한다”고 하여 陰陽五行的 觀點에 의한 相應關係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內容은 內經의 各篇속에 散在하여 있어 따로 整理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하나로 分類하여 보고자 하여 그 외의 文獻과 함께 整理하여 보았다.

天人相應의 見解는 《靈樞·邪客篇》의 天地와 人間의 相應關係에서 말한 사람의 肢節이 天地와 各各 相應한다고 하여 “天圓地方 頭圓足方 天有日月 人有兩目…”이라 하였는데, 이는 陰陽理致와 象數에 따른 關係로써 人間이 天地와 더불어 相參하고 相應하여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天에는 두가지의 意味가 內包되어 있는데, 하나는 “天者顛也”라 하여 人間의 머리위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며, 具體적으로는 天文과 氣象을 觀測하는데 필요한 日月星辰을 말하고, 天은 또한 “天者道也”라 하여 規律과 法則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具體적으로는 陰陽을 말한다. 이상의 두가지 意味를 綜合해보건대 天은 自然規律 或은 自然法則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때에 따라서 天和 地를 함께 하여 自然界를 代表하기도 한다. 天人相應이라고 하는 것은 人間과 自然이 하나의 統一體로서 氣機가 相應하는 密接한 關係임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人間은 自然과 떨어져서는 存在할 수 없고 自然界의 氣候와 環境의 變化는 時時各各으로 人體의 氣機活動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이라고 한 것처럼 人間은 반드시 大自然의 氣化에 依賴하는 가운데서 生命을 維持하게 되며 四時變化의 法度에 適應함으로써 成長을 繼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素問·生氣通天論》에 이르기를 “九竅 五臟 十二節 皆通乎天氣”라고 한 것도 역시 人體의 氣化活動이 自然界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그래서 “宇宙是一大天地 人身是一小天地”라고 하는 것도 天

地와 人身에서 나타나는 現象들이 같지 않지만 이들 사이에는 相互 共通의 規律이 存在함을 意味한다.

氣候의 變化가 正常的일 때는 人體가 能히 適應할 수 있지만 不及이나 太過에 이르면 疾病이 發生하게 되고, 疾病發生의 樣相도 季節이나 時間, 環境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되니, 이는 四時五行의 不同으로부터 不同한 疾患이 發生함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天人整體觀은 韓醫學의 理論體系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養生防病과 臨床醫學에 대하여도 모두 重要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內經》을 비롯한 여러 文獻에서 天人相應의 主要內容과 그 具體運用을 選擇하여 서로 關聯되는 것을 分類 解説하였다.

II. 本 論

天人相應의 觀點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天地와 人物 사이의 단순한 對應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天地 自然의 變化에 의해 人이 生存하며 適應해나가는 整體性이 있으며, 이에 適應하지 못했을 경우에 疾病이 發生하는 臨床的 側面으로 볼 수 있다.

1. 頭圓足方

黃帝問於伯高曰 願聞人之肢節 以應天地奈何
伯高答曰 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¹⁾

朱子가 河圖와 洛書의 解에서 “陽의 象은 圓하니 圓이란 것은 一을 徑하여 三으로 圍하고 陰의 象은 方하니 方이란 것은 一을 徑하여 四로 圍하는 것이니 三으로 圍한다는 것은 一으로써 一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一陽을 參하여 三이 되는 것이요 四로 圍한다는 것은 二로써 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一陰을 兩하여 二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이른 바 參天兩地라고 하는 것이요 이 三과 二를 合하면 五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河圖 洛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1) 《靈樞·邪客篇》

書의 數가 써한 바 모두 五로써 中이 되는 것이
라”한 것과 같이 이三二 즉 一二是 奇와 偶인 陽
과 陰을 말하는 것이요 이 陽과 陰의 모두에 所自
出의 母體는 三二의 合인 中宮의 五數이고 이 五
의 中에는 이 五와 아울러 全體數의 中央에 해당
하는 一點이 있는 것이므로 이 一이 또한 모든 陰
과 陽을 포함한 太極의 意味이자 陰과 陽의 所自
出인 元始點임을 意味하므로 一六水의 一의 意味
와도 相通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陰陽과 天地가
本來는 둘이 아닌 一氣의 變化에서 나누어진 것이
라 하겠다.

그리하여 또한 陽의 象은 圓하고 陰의 象은 方
하게 된 것이라 하겠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머리는
陽에 屬하여 上에 位置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圓의
形象으로 天에 應한 것이요 사람의 발은 陰에 屬
하여 아래에 位置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난 形象
으로 地에 應한 것이라 하겠다.

2. 天日月 人兩目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音 人有五臟 天有六律 人有六腑 天有冬夏
人有寒熱 天有十日 人有手十指 辰有十二 人有足十
指 莖垂以應之 女子不足二節 以抱人形 天有陰陽
人有夫妻 歲有三百六十五日 人有三百六十節 地有
高山 人有肩膝 地有深谷 人有腋臑 地有十二經水
人有十二經脈 地有泉脈 人有衛氣 地有草葉 人有毫
毛 天有晝夜 人有臥起 天有列星 人有牙齒 地有小
山 人有小節 地有山石 人有高骨 地有林木 人有募
筋 地有聚邑 人有脰肉 歲有十二月 人有十二節 地
有四時不生草 人有無子 此人與天地相應者也²⁾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 萬物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두눈이 있어 萬象을 밝게 보는
것이요 땅에 荊州 梁州 雍州 豫州 徐州 揚州 青州
兗州 冀州등의 九州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耳
目口鼻의 上竅과 下의 前後二陰을 合한 九竅가 있
는 것이므로 淸陽은 上竅로 出하니 이 陽中에도
陰陽이 있으므로 目은 日月의 象으로 監察官이라
하고 鼻는 淸陽을 吸入하며 五臭를 分別하는 審辨
官이라 하니 이 目과 鼻는 陽中の 陽이요 耳는 五
音을 듣는 採聽官이라 하고 口는 言語를 하며 五
味를 食하는 出納官이라 하니 이 耳와 口는 陽中
의 陰이 되는 것이며 下의 陰에도 陰中の 陰陽이

있으니 下의 前陰은 陰中の 淸에 該當하며 小便을
排出하는 陰中の 陽인 것이요 後陰은 陰中の 濁에
該當하며 大便을 排出하는 陰中の 陰인 것이라 하
겠다.

그리고 和風과 甘雨는 天의 喜이고 摧拉과 霖潰
는 天의 怒인 것이며 陰陽의 相搏으로 天地間에서
發함이 雷電이 되니 情志의 나타나는 바로 人物에
서 發함이 音聲인 것이므로 또한 사람도 發聲의
根은 陰의 腎이요 聲의 門戶는 陽의 肺가 되는 것
이며 天의 四時처럼 사람도 兩手足의 四肢가 있는
 것이며 하늘에 宮商角徵羽의 五音이 있는 것과 같
이 사람에게도 五臟이 있는 것이요 하늘에 黃鍾
太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 等の 六律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胃 膽 大腸 小腸 三焦 膀胱 등의
六腑가 있는 것이며 하늘에 겨울과 여름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겨울에 應하는 것과 같은 寒과
여름에 應함과 같은 熱이 있는 것이며 하늘에 甲
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十干의 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손에 十指가 있는 것이며 辰에 子丑寅
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十二支가 있는 것처럼 사람
에게도 足趾의 十個와 經垂를 아우르므로 十二가
되는 것이니 經은 宗筋을 말하고 垂는 辜丸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女子는 男子보다 二節이 적
기 때문에 그러므로 能히 人形을 抱하는 것이니
抱라는 것은 懷胎의 意義이니 西北의 陰을 伏鷄라
稱하고 抱가 되는 것과 같음 이 바로 이것이라 하
겠다.

하늘이 陽이 되고 땅이 陰이 됨과 같이 夫가 陽
이 되고 妻가 陰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夫는 이
에 妻의 天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歲에 三百六
十五日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대체로 三百
六十骨節이 있는 것이요 땅에 높은 山이 있는 것
처럼 사람에게도 骨이 크고 높은 部分의 肩膝의
骨이 있는 것이며 땅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
럼 사람에게도 深陷한 部分의 腋과 臑이 있는 것
이며 땅에 十二經의 水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全身의 十二經脈이 있는 것이요 땅에 지하에서 出
하는 泉脈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衛氣가 있으
니 그러므로 衛氣가 下焦에서 出하여 肌肉中으로
行하는 것이며 땅에 萱草인 萁莢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毫毛가 있는 것이요 하늘에 晝의 陽과
夜의 陰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 陽動과 陰
靜에 應하는 臥하고 起함이 있는 것이며 하늘에
列星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齒牙의 疎明함이
있어 그 形象이 列星과 같은 것이요 땅에 작은 山

2) 《靈樞·邪客篇》

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小骨의 肢節이 있는 것이며 땅에 山石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顛肩 膝踝의 類와 같은 高骨이 있는 것이요 地에 林木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筋脈의 聚縮한 곳의 募筋이 있는 것이며 땅에 聚畝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脂肉의 모인 곳인 膈肉이 있는 것이요 歲에 十二個月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四肢各三節씩을 모두 합한 十二節이 있는 것이며 땅에 四時節에 풀이 나지 않는 不毛地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子息을 生育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人身이 小天地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땅으로 더불어應하는 것이라 한 것이다.

3. 人亦有四海

黃帝問於岐伯曰 余聞刺法於夫子 夫子之所言 不離於營衛血氣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腑臟 外絡於肢節 夫子乃合之於四海乎

岐伯答曰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黃帝曰 以人應之奈何?

岐伯曰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

黃帝曰 遠乎哉 夫子之合人天地四海也 願問應之奈何?

岐伯答曰 必先明知陰陽表裏榮輸所在 四海定矣

黃帝曰 定之奈何?

岐伯曰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 爲十二經之海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膈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柱骨之上下 前在於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黃帝曰 凡此四海者 何利何害? 何生何敗?

岐伯曰 得順者生 得逆者敗 知調者利 不知調者害

黃帝曰 四海之逆順奈何?

岐伯曰 氣海有餘者 氣滿胸中 悅息面赤 氣海不足 則氣少不足以言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水穀之海有餘 則腹滿 水穀之海不足 則饑不受穀食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暈 目無所見 懈怠安臥

黃帝曰 余已聞逆順 謂之奈何?

岐伯曰 審守其輸 而調其虛實 無犯其害 順者得復 逆者必敗

黃帝曰 善³⁾

黃帝가 岐伯에 물어 말하기를 내가 夫子에게 刺法을 들을때 夫子의 말한 바로는 營衛 血氣에 떠나지 않으므로 이 營衛血氣를 運行하는 무릇 十二經脈이란 것은 內로는 六腑와 五臟에 屬하고 外로는 肢節에까지 絡하였다 하였으니 夫子는 이에 이들이 四海와 合流되는 것을 아는가 한대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自然界에도 東西南北의 四海가 있고 經水가 모두 海中으로 流注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또한 이 自然界와 相應하는 四海와 十二經脈이 있는 것이라 한바 黃帝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應하는 것은 어떠한가 한대 岐伯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髓 血 氣 水穀의 四海가 있는 것이라 한바 黃帝가 말씀하기를 深遠하도다. 夫子가 말하는 사람과 天地四海가 合流한다 함이여 應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기를 願한다고 한대 岐伯이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陰陽인 經脈의 陰陽과 表裏인 腑臟의 內外와 榮輸의 在한바를 밝게 알아야만 四海도 定하여지게 되는 것이라 한바 黃帝가 말씀하기를 定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대 岐伯이 말하기를 사람이 水穀에서 氣를 受하므로 水穀이 口로 入하여 胃에 藏하며 五臟의 氣를 養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五臟六腑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出하는 것이므로 胃가 水穀의 海가 되는 것이며 그 胃氣의 運行하는 輸가 上한 者는 氣街穴에 있고 下한 者는 膝下三寸에 該當하는 三里穴에 있는 것이며 衝脈이란 것은 곧 血海라고도 하니 衝脈이 胞中에서 起하여 그 前으로 行하는 것은 足少陰經을 并하여 臍를 狹하며 上行하고 臍中에 至하여 散하며 그 後로 行하는 것은 上으로 背裏를 循하며 經絡의 海가 되며 그 上行하는 것은 頰頰에 出하고 下行하는 것은 足에 出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輸가 上으로는 足太陽의 大杼에 在하고 下로는 足陽明의 巨虛 上下廉에 在하는 것이라 한 것이며 또한 張景岳이 말하기를 《動輸篇》에 이르기를 胃가 五臟六腑의 海가 된다고 하였고 《太陰陽明論》에서 이르기를 陽明이란것은 表이며 五臟六腑의 海라고 하였으며 《逆順肥瘦篇》에서 이르기를 무릇 衝脈이란 것은 五臟六腑의 海이며 五臟六腑가 모두 稟하는 것이라 하였고 次篇에서 말하기를 衝脈이란 十二經의 海가 된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諸論은 곧 胃가 衝脈으로 더불어 모두 十二經의 海가 되며 또한 모두 五臟六腑의 海가 된다 한 것이므로 또한 장차 어떻게 分辨 하겠는가? 그러므로 本篇에 水穀의 海라 하고 血海라고 한 分別이 있으니 水穀의 海라 한 것은 水穀을 이에

3) 《靈樞·海論》

盛貯하여 營衛가 이로 말미암아 化生함을 말함이고 血海라고 한 것은 諸經의 灌注를 受納하여 精血이 이에 蓄藏함을 말함이므로 이것이 진실로 그 分辨이 되는 것이며 《痿論》에 말한 것에 미쳐 考察한다면 陽明이란 것은 五臟六腑의 海이므로 主로 宗筋을 潤하게 하고 宗筋은 主로 骨을 束하고 機關을 利하게 하며 衝脈이란 것은 經脈의 海이므로 主로 谿谷을 滲灌하며 陽明으로 더불어 宗筋에 合하니 陽明이 宗筋의 會에서 總集하고 氣街에서 會하므로 陽明이 長이 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대개 陽明은 多血多氣의 府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主로 宗筋을 潤하게 하고 機關을 利하게 하며 衝脈은 精血이 所聚하는 經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主로 谿谷을 滲灌하는 것이며 또한 衝脈은 胸中에서 起하여 少陰의 大絡을 并하여 上行하며 陽明에 屬함에 下行하여 諸經의 長이 됨이 또한 前陰에서 會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男女의 精血이 모두 前陰을 말미암아 降하는 것이며 二經의 血氣가 모두 此에서 聚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均稱하여 五臟六腑十二經의 海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진실로 他經의 可比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膻中이란 胸中을 말하며 肺의 居하는 바이고 諸氣라는 것은 모두가 肺에 屬하여 이것이 眞氣가 되는 것이며 또한 말하여 宗氣라고도 하니 宗氣가 胸中에 쌓여 喉嚨에 出하며 心脈을 貫하여 呼吸을 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膻中이 氣海가 되는 것이요 그 輸함은 上으로는 柱骨의 上下에 在하고 前으로는 人迎에 在한다 하였으니 柱骨이란 項後의 天柱骨을 말함이고 《憂애無言論》에서 말하기를 頰頰이란 것은 分氣의 泄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氣海運行의 輸는 하나는 頰頰의 後인 즉 柱骨의 上下에 在한다 하였으니 督脈의 痠門穴과 大椎穴을 이르는 것이요 하나는 頰頰의 前에 在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陽明의 人迎穴을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무릇 骨의 髓가 있는 것에 오직 腦가 가장 巨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諸髓는 모두가 腦에 屬하므로 腦가 髓의 海가 되는 것이니 蓋라 함은 腦蓋骨을 말함이기 때문에 곧 督脈의 頰會穴과 風府穴이므로 또한 督脈穴은 이 모두가 髓海의 上下前後에 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상에서 말한 이 四海는 모두가 順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順을 얻는다는 것은 養할 바를 아는 것이므로 그리하여 生하는 것이요 養할 바를 알지 못하면 逆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敗하는 것이라 하였고 氣海가 有餘하다는 것은 邪氣가 實함을 말함이고 氣가 不足하다는 것은 精氣가 虛함을 말함이니 氣海는 胸中에 在하여 陽에 屬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氣가 實하면 胸中이 悅悶喘息하고 面이 熱하며 赤하게 되는 것이요 音聲은 氣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氣가 不足하면 言語에 輕怯하여 능히 出聲을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脈要精微論》에서도 말하기를 言하며 微하고 宗氣 이에 復言하는 것은 이는 氣가 奪함인 것이라고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血海가 有餘하면 血이 有餘한 것이기 形은 血으로써 充하는 것이므로 항상 그 身이 大함을 想하는 것이요 佛이라 함은 鬱함이므로 重滯하여 퍼지 못하는 모양을 말함인 것이요 血이 不足하면 항상 그 身이 小함을 想한다 한 것이고 狹이란 意 狹의 意味이니 索然하여 높지 못한 모양을 말함이므로 이 모두는 血海不足으로 病이 됨을 말함이며 血이라는 것은 徐徐하여 顯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茫然히 그 病狀 바를 覺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水穀의 海가 有餘한 것은 水穀이 中에 留滯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腹이 膨滿하게 되고 不足한 것은 脾가 虛하면 능히 運하지 못하고 胃가 虛하면 능히 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록 饑하여도 穀食을 受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髓海가 有餘하다 함은 髓海가 充足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身이 輕하고 勁하며 便利하고 多力하여 스스로 過人의 度가 있기 때문에 無病한 것이요, 만약 그 不足하게 된다면 上에 在한 것은 腦轉이 되는 것이니 이는 腦가 空하여 運하기 때문에 旋轉함과 같은 것이며, 耳鳴이 되는 것은 髓가 虛한 者는 精이 반드시 衰하기 때문에 陰이 虛함이므로 곧 耳가 鳴하는 것이요, 脛痠이 되는 것은 髓가 空하여 無力함인 것이며, 眩冒가 되는 것은 홀연히 人을 知하지 못함인 것이요, 目에 見하는 바가 없고 怠惰하여 臥하기를 安한다 함은 모두가 髓로써 精類가 되기 때문에 精이 衰하면 氣가 去하게 되어 모든 證이 見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살피어 그 輸를 守한다 함은 그 輸血을 審察함을 말함이며 그 害로움을 犯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盛함을 盛하게 함이 없고 虛함을 虛하게 함이 함이 없는 것이며 順하는 자는 復함을 얻고 逆하는 者는 반드시 敗한다 함은 무릇 天時와 人

事를 모두 愼하여 忽하게 함이 不可한 것임을 切戒한 것이라 한 것이라고 하였다.

4. 始生之本

岐伯對曰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色爲蒼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竅爲目 在味爲酸 在志爲怒 怒傷肝 脾勝怒 風傷筋 燥勝風 酸傷筋 辛勝酸.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脾主舌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體爲脈 在臟爲心 在色爲赤 在音爲徵 在聲爲笑 在變動爲憂 在竅爲舌 在味爲苦 在地爲喜 喜傷心 恐勝喜 熱傷氣 寒勝熱 苦傷氣 鹹勝苦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脾生肉 肉生肺 脾主口 其在天爲濕 在地爲土 在體爲肉 在臟爲脾 在色爲黃 在音爲宮 在聲爲歌 在變動爲噦 在竅爲口 在味爲甘 在地爲思 思傷脾 怒勝思 濕傷肉 風勝濕 甘傷肉 酸勝甘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在腎 肺主鼻 其在天爲燥 在地爲金 在體爲皮毛 在臟爲肺 在色爲白 在音爲商 在聲爲哭 在變動爲咳 在竅爲鼻 在味爲辛 在地爲憂 憂傷肺 喜勝憂 熱傷皮毛 寒勝熱 辛傷皮毛 苦勝辛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髓生肝 腎主耳 其在天爲寒 在地爲水 在體爲骨 在臟爲腎 在色爲黑 在音爲羽 在聲爲呻 在變動爲慄 在竅爲耳 在味爲鹹 在地爲恐 恐傷腎 思勝恐 寒傷血 燥勝寒 鹹傷血 甘勝鹹

故曰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故曰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⁴⁾

次首는 天人合一의 道를 밝히는데, 天은 陰陽五行으로 萬物을 化生하고 氣로써 形을 이룸이라 사람이 萬物의 靈이 되어 始生之氣가 東에서 稟賦받으면 이른바 帝出乎震⁵⁾이 되니 帝라는 것은 나의 靈明主宰이다. 그 天에 當하여서는 玄妙한 理致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大道의 根源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生化의 根本이 된다. 그 大道의 根源이 되어서 神智가 말미암아 生하고 形體가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된다. 神出乎震하고 萬于離하여 一身

의 主宰가 된다. 震이라는 것은 肝이요 離라는 것은 心이니 故로 東方之木으로 南方의 火를 生하고 이로 말미암아 土를 生하고 金을 生하고 水를 生하게 되면 陰陽五行의 氣가 온전하여 質을 이루게 되어 五臟 六腑 筋骨 血氣의 形體가 갖추어지게 된다. 五臟은 五行의 性을 稟賦받고 神이 心에서 만나니 또한 나누어져서 五行의 用이 된다. 肝怒 心喜 脾思 肺憂 腎恐같은 것은 각각 主하는 바가 있다. 五行相剋相生에 혹 傷動함이 있으면 그 氣가 偏僻되어 病을 이루게 된다. 가령 肝木이 太過하면 肺金의 克制가 勝하고 만일 그 不足하면 腎水의 相生하는 것이 도우니 나머지는 가히 類推할 수 있다 무릇 聲色氣味の 生化 制勝도 또한 그러하니 이런 故로 萬物生成에 天地陰陽의 造化로부터 出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陰陽의 氣가 서로 根本이 되고 서로 用이 되어 人身에 있어서는 곧 陰居內는 陽之守가 되고 陽居外는 陰之使가 된다. 이는 모두 先天生化로부터 臟腑形軀를 이룬 것을 밝히니 이는 後天이 되고 後天의 氣가 말미암아 生化하고 循環不息하여 이에 稟賦源流가 되니 天人合一의 道가 되는 것이다.

5. 사람과 自然은 하나의 整體이다.

天復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⁶⁾

天之在我者 德也 地之在我者 氣也 德流氣薄而生者也⁷⁾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於五 人亦應之⁸⁾

善言天者 必應於人⁹⁾

人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應也¹⁰⁾

黃帝問曰 余聞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大小月三百六十日成一歲 人亦應之¹¹⁾

5) 《周易·說卦傳 第五章》 帝出乎震하여 齊乎巽하고 相見乎離하고 致役乎坤하고 說言乎兌하고 戰乎乾하고 勞乎坎하고 成言乎艮하니라. 萬物이 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라. 齊乎巽하니 巽은 東南也니 齊也者는 言萬物之潔齊也라. 離也者는 明也니 萬物이 皆相見할새니 南方之卦也니…….

6) 《素問·寶命全形論》

7) 《靈樞·本神》

8) 《素問·六節藏象論》

9) 《素問·氣交變大論》

10) 《靈樞·歲露論》

11) 《素問·陰陽離合論》

4) 《素問·陰陽應象大論》

夫言人之陰陽……故以應天之陰陽也¹²⁾

天地之大紀人 神之通應也¹³⁾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其氣九州九竅 皆通乎天氣 故其生五 其氣三 三而成天 三而成地 三而成人 三而三之 合則爲九 九分爲九野 九野爲九臟 故形臟四 神臟五 合爲九臟以應之也¹⁴⁾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 九州 九竅 五臟 十二節 皆通乎天氣 其生五 其氣三 數犯此者 卽邪氣傷人 此壽命之本也¹⁵⁾

故天有精 地有形 天有八紀 地有五理 故能爲萬物之父母 清陽上天 濁陰歸地 是故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故能以生長收藏 終而復始 惟賢人上配天以養頭 下象地以養足 中傍人事以養五臟 天氣通於肺 地氣通於膈 風氣通於肝 雷氣通於心 穀氣通於脾 雨氣通於腎 六經爲川 腸胃爲海 九竅爲水注之氣 以天地爲之陰陽 陽之汗 以天地之雨右之 陽之氣 以天地之疾風名之 暴氣象雷 逆氣象陽¹⁶⁾

心者……通於夏氣 肺者……通於秋氣 腎者……通於冬氣 肝者……通於春氣 脾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者……通於土氣¹⁷⁾

肝主春……心主夏……脾主長夏……肺主秋……腎主冬¹⁸⁾

帝曰：余念其痛 心爲之亂惑反甚 其病不可更代 百姓聞之 以爲殘賊 爲之奈何 岐伯曰 夫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 人能應四時者 天地爲之父母 知萬物者 謂之天子 天有陰陽 人有十二節 天有寒暑 人有虛實 能經天地陰陽之化者 不失四時 知十二節之理者 聖智不能欺也 能存八動之變 五勝更立 能達虛實之數者 獨出獨入 吐吟至微 秋毫在目¹⁹⁾

五臟者 所以參天地 副陰陽 而運四時 化五節者也²⁰⁾

帝曰 五臟應四時 各有收受乎？岐伯曰 有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其味酸 其類草木 其畜雞 其穀麥 其應四時 上爲歲星 是以春氣在頭也 其音角 其數八 是以知病之在筋也 其臭臊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藏精於心 故病在五臟 其味苦 其類火 其畜羊 其穀黍 其應四時 上爲熒惑星 是以知病之在脈也 其音徵 其數七 其臭焦 中央方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 故病在舌本 其味甘 其類土 其畜牛 其穀稷 其應四時 上爲鎮星 是以知病之在肉也 其音宮 其數五 其臭香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其病在背

其味辛 其類金 其畜馬 其穀稻 其應四時 上爲太白星 是以知病之在皮毛也 其音商 其數九 其臭腥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 故病在溪 其味鹹 其類水 其畜崑 其穀豆 其應四時 上爲辰星 是以知病之在骨也 其音羽 其數六 其臭腐²¹⁾

肝爲牡臟 其色青 其時春 其音角 其味酸 其日甲乙 心爲牡臟 其色赤 其時夏 其日丙丁 其音徵 其味苦 脾爲牝臟 其色黃 其時長夏 其日戊己 其音宮 其味甘 肺爲牝臟 其色白 其音商 其時秋 其日庚辛 其味辛 腎爲牝臟 其色黑 其時冬 其日壬癸 其音羽 其味鹹 是爲五變²²⁾

孟春始至 黃帝燕坐 臨觀八極 正八風之氣 而問雷公曰 陰陽之類 經脈之道 五中所主 何臟最貴 雷公對曰 春甲乙青 中主肝 治七十二日 是脈之主時 臣以其臟最貴 帝曰 却念上下經 陰陽從容 子所言貴最其下也²³⁾

《內經》에서는 사람의 生命이 自然界가 賦與한 條件과 物質才能存在에 依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을 說明함이 天地의 “德流氣薄而生”,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天地合氣 命之曰人”에 依賴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이 自然界의 運動變化의 가운데에 生하고 또 天의 五氣와 地의 五味로부터 養生生存되니 이 로 因하여 사람과 自然의 關係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整體로써 自然界의 運動變化가 必然의 으로 사람의 功能活動에 影響을 미친다. 그래서 “人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應也”라고 말했다. 《內經》에서는 天人相應이 간단한 取象比類가 아닌 自然界 萬物과 人體 結構功能의 陰陽五行屬性이 서로 配合되어 온 것이라고 認識하였다. 因하여 宇宙萬物屬性이 相同한 同氣相求²⁴⁾가 있고 쉽게 發

12) 《素問·金匱真言論》

13) 《素問·至真要大論》

14) 《素問·六節藏象論》

15) 《素問·生氣通天論》

16) 《素問·陰陽應象大論》

17) 《素問·六節藏象論》

18) 《素問·藏氣法時論》

19) 《素問·寶命全形論》

20) 《靈樞·本神》

21) 《素問·金匱真言論》

22)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23) 《素問·陰陽類論》

24) 《周易·乾卦 文言》九五曰飛龍在天利見大人은 何謂也오. 子|曰 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하야 水流濕하며 火就燥하며 雲從龍하며 風從虎라.

生感應하는 親合之機가 되는데 陽主動 陰主靜은 五行의 火性炎上과 水性潤下等과 같은 것인데 宇宙萬物은 모두 이처럼 詳細하다. 內經에서는 “五臟有四時 各有收受”의 一段 論述中에서 人體의 臟腑 形體 官竅와 自然界 萬物의 關係를 形象의 으로 描繪해서 “天氣通于肺……”, “肺氣通于秋……” 등에 미치고, 自然界의 陽光雨露도 또한 天의 精氣의 運動變化인데 人體臟腑에 대하여 모두 직접적 影響을 미침에 이르렀다.

무릇 千年이래의 醫療實踐證明은 사람과 自然界가 하나의 有機的 整體가 있고 人體는 단지 自然界와 더불어 保持協調와 統一의 關係가 있고 健康의 生長發育에 才能이 있어 이는 中醫學 天人相應의 整體觀에 나아갔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에 精明의 氣가 있어 八節로 나뉘어져 紀序하고 地에 高下의 形이 있어 五方으로 나뉘어져 定里하니 故로 能히 萬物의 父母가 되고, 中에 濁降 淸升하여 生하고 生 化하여 氣가 開闢動靜하고 神明이 綱紀가 되어 故로 能히 生長收藏하여 終而復始하게 된다. 오직 賢明하고 智慧로운 사람만이 그 理致를 깨달아서 天地氣化에 取法하여 養生의 道를 삼을 수 있다. 《四氣調神論》에 이른 것 같으면 뜻이 下文에 詳細하다. 대개 사람이 天地 氣交의 가운데 生하여서 天地와 더불어 根本이 같다. 하늘이 五氣로써 사람을 먹이니 故로 天氣는 肺로 通하여 淸陽이 코로부터 들어가게 되고, 五味로써 사람을 먹이니 故로 地氣는 목구멍에 通하니 濁陰이 입으로부터 들어가게 된다. 肝은 木에 속하고 風을 主하니 故로 風氣는 肝에 通하게 되고, 心은 火에 屬하고 腦는 火가 되니 故로 賴氣는 心에 通하고, 脾기는 土에 屬하고 濕을 主하니 故로 山谷蒸濕의 氣가 脾에 通하게 되고, 腎은 水에 屬하고 寒을 主하니 雨는 天의 陰氣下降으로 寒水의 化한 바이니 故로 雨氣는 腎에 通하게 된다. 이로부터 天地의 氣가 化하면 사람을 기르고 氣가 이그러지면 사람을 病들게 하는 것이 이미 言外에 있음을 알 것이다. 이리하여 陰陽氣血이 流行함에 그 經에 있어서 是 川과 같고 腸胃에 모이면 海와 같아서 氣水가 流行함에 淸升濁降하여 上下九竅에 分注하 게 된다. 만일 人身陰陽으로 天地의 陰陽을 比較 하면 그 水谷이 化한 바의 汗은 天地의 雨로 名할 수 있고 그 陽氣의 流行迅利는 天地의 疾風으로 名할 수 있고 그 暴氣 逆氣는 陽火 迅烈의 우리로 名할 수 있다. 이는 天地의 氣가 사람과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故로 그 身을 調 治하려는 사람은 天地의 氣化에 法하지 않으면 災 害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

6. 人體와 自然環境의 相應

黃帝問曰 天有五行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 五臟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 論言五運相襲 而皆治 之 終暮之日 周而復始 余已知之矣 願聞其與三陰三 陽之候奈何合之? 鬼史區稽首再拜對曰 昭乎哉問 也²⁵⁾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 五臟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²⁶⁾

人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應也 故月滿則海水西盛 人血氣積 肌肉充 皮膚緻 毛髮堅 腠理郤 煙垢著 當 時之時 雖遇適風 其入淺不深 至其月郭空 則海水東 盛 人氣血虛 其衛氣去 形獨居 肌肉減 皮膚縱 腠理 開 毛髮殘 腠理薄 煙垢落 當是之時 遇賊風則其入 深 其病人也卒暴²⁷⁾

月始生則血氣始精 衛氣始行 月郭滿則血氣實 肌 肉堅 月郭空 則肌肉減 經絡虛 衛氣去 形獨居 是以 因天時而調血氣也²⁸⁾

陽氣者 一日而主外 平旦人氣生 日中而陽氣隆 日 酉而陽氣已虛 氣門乃閉 是故暮而收拒 無擾筋骨 無 見霧露 反此三時 形乃困薄²⁹⁾

寒則皮膚急而腠理閉 暑則皮膚緩而腠理開³⁰⁾

陰陽者 寒暑也 熱則滋雨而在上 根莖少汁 人氣在 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膚淖澤 寒則地凍 水水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 澁³¹⁾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天寒則腠理閉 氣 濕不行 水下留於膀胱 則爲溺與氣³²⁾

是故天溫日明 則人血淪液而衛氣浮 故血易瀉 氣 易行 天寒日陰 則人血凝泣而衛氣沈³³⁾

余願聞邪氣之在經也 其病人何如? 取之奈何? 岐 伯對曰 夫聖人之起度數 必應於天地 故天有宿度 地 有經水 人有經脈 天地溫和 則經水安靜 天寒地凍

25) 《素問·天元紀大論》

26) 《素問·陰陽應象大論》

27) 《素問·歲露論》

28) 《素問·八正神明論》

29) 《素問·生氣通天論》

30) 《靈樞·歲露論》

31) 《靈樞·刺節真邪》

32) 《靈樞·五癯津液別》

33) 《素問·八正神明論》

則經水凝泣 天暑地熱 則經水沸溢 卒風暴起 則經水波涌而騰起 34)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³⁵⁾

春者木始治 肝氣始生 肝氣急 其風疾 經脈常深 其氣少 ……夏者火始治 心氣始長 脈瘦氣弱 陽氣留溢 熱熏分腠 內至於經 ……秋者金始治 肺將收殺 金將勝火 陽氣在合 陰氣初勝 濕氣及體 陰氣未盛 未能深入 ……冬者水始治 腎方閉 陽氣衰少 陰氣堅盛 巨陽伏沉 陽脈乃去³⁶⁾

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帝曰 余願聞其故? 岐伯曰 春者天氣始開 地氣始泄 凍解冰釋 水行經通 故人氣在脈 夏者經滿氣溢 入孫絡受血 皮膚充實 長夏者 經絡皆盛 內溢於肌 秋者 天氣始收 腠理閉塞 皮膚引急 冬者蓋藏 血氣在中 內著骨髓 通於五臟 37)

春氣在毛 夏氣在皮膚 秋氣在分肉 冬氣在筋骨³⁸⁾

黃帝問曰 診要何如 岐伯對曰 正月二月 天氣始方 地氣始發 人氣在肝 三月四月 天氣正方 地氣定發 人氣在脾 五月六月 天氣盛 地氣高 人氣在頭 七月八月 陰氣始殺 人氣在肺 九月十月 陰氣始冰 地氣始閉 人氣在心 十一月十二月 冰復 地氣合 人氣在腎³⁹⁾

黃帝曰 余聞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其合于人奈何 岐伯曰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故天爲陽 地爲陰 故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 月生於水 故在下者爲陰 手之十指 以應十日 日主火 故在上者爲陽 黃帝曰 合之于脈乃何 岐伯曰 寅者正月之生陽也 主左足之少陽 未者六月 主右足之少陽 卯者二月 主左足之太陽 午者五月 主右足之太陽 辰者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四月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于前 故曰陽明 申者 七月之生陰也 主右足之少陰 丑者十二月 主左足之少陰 酉者八月 主右足之太陰 子者十一月 主左足之太陰 戌者九月 主右足之厥陰 亥者十月 主左足之厥陰 此兩陰交盡 故曰厥陰 甲主左手之少陽 己主右手之少陽 乙主左手之太陽 戊主右手之太陽 丙主左手之陽明 丁主右手之陽明 此兩火并合 故爲陽明 庚主右手之少陰 癸主左手之少陰 申主右手之太陰 壬主左手之太陰 故足之陽者 陰中之少陽也 足之陰者 陰中之太陰也 手之陽者 陽中之太陽也 手之陰者 陰中之少陰也 腰以上者爲陽 腰以下者爲陰 其于五臟也 心爲陽中之太陽 肺爲陰中之少陰 肝爲陰中之少陽 脾爲陰中之太陰 腎爲陰中之太陰⁴⁰⁾

正月 二月 三月 人氣在左 …… 四月 五月 六月 人

氣在右 …… 七月 八月 九月 人氣在右 …… 十月 十一月 十二月 人氣在左⁴¹⁾

經脈留行不止 與天同度 與地合紀 夫血脈營衛 周流不休 上應星宿 下應經數⁴²⁾

氣之逆順者 所以應天地 陰陽 四時 五行也⁴³⁾

黃帝曰 余願聞五十營奈何? 岐伯答曰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 左右 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故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 日行二分 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於中 一周於身 下水二刻 日行二十五分 五百四十息 氣行再周於身 下水四刻 日行四十分 二千七百息 氣行十周於身 下水二十刻 日行五宿二十分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 脈終矣 所謂交通者 并行一數也 故五十營備 得盡天地之數矣 凡行八百一十丈也⁴⁴⁾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人之合於天道也 內有五臟 以應五音 五色 五時 五味 五位也 外有六腑 以應六律 六律建陰陽諸經而合之十二月 十二辰 十二節 十二經水 十二時 十二經脈者 此五臟六腑之所以應天道⁴⁵⁾

黃帝問曰 余聞九針于夫子 衆多博大 不可勝數 余願聞要道 以屬子孫 傳之後世 著之骨髓 藏之肝肺 歆血而受 不敢妄泄 令合天道 必有終始 上應天光星辰 歷紀 下副四時五行 貴賤更立 冬陽夏陰 以人應之奈何 願聞其方? 岐伯對曰 妙乎哉問也! 此天地之至數 帝曰 願聞天地之至數 合於人形血氣 通決死生爲之奈何? 岐伯曰 天地之至數始於一 終於九焉 一者天 二者地 三者人 因而三之 三三者九 以應九野 故人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生 以處百病 以調虛實 而除邪疾⁴⁶⁾

35) 《靈樞·禁服》

36) 《素問·水熱穴論》

37) 《素問·四時刺逆從論》

38) 《靈樞·終始》

39) 《素問·診要經終論》

40) 《靈樞·陰陽繫日月》

41) 《靈樞·陰陽繫日月》

42) 《靈樞·癰疽》

43) 《靈樞·逆順》

44) 《靈樞·五十營》

45) 《靈樞·經別》

46) 《素問·三部九候論》

34) 《素問·離合真邪論》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帝曰 何以然? 岐伯曰 東方陽也 陽者其精 並於上 並於上則上明而下虛 故使耳目聰明 而手足不便也 西方陰也 陰者其精並於下 並於下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 而手足便也 故俱感於邪 其在上則右甚 在下則左甚 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 故邪居之⁴⁷⁾

一州之氣 生化壽夭不同 其故何也? 岐伯曰 高下之理 地勢使然也⁴⁸⁾

《內經》에서는 人體의 臟腑經絡과 形體官竅가 五臟이 주가 되고 各各 陰陽五行屬性形成的 相互 協調과 아울러 陰陽五行規律運動의 整體를 갖추고 있다. 人體가 宇宙中間에 存在하여 또한 自然界 季節 氣候 時間 地域과 서로 相應하여 사람과 自然相應의 整體를 이룬다. 因하여 人體와 自然萬物의 運動變化는 모두 天地의 動靜 陰陽의 變化에 依賴하고 있고 天에 四時五行이 있어 寒暑燥濕風의 氣候를 蘊生하고 萬物의 生長收藏을 促進하며, 人體에 相應하는 五臟活動은 五氣를 蘊生하여 喜怒哀憂恐의 情志變化를 產生한다. 이와 같을뿐만 아니라 人體는 天體運行의 影響을 還收하니 《靈樞·歲露論》에서는 “月滿即海水西盛 人氣血積… 月廓空即海水東盛 人氣血虛…” 등의 論述을 指出했고 《內經》에서는 日의 晦明과 月의 盈虧에 隨着하여 人體에 모두 相應하는 變化를 發生시킨다고 認識하였다. 天地의 머무르지 않는 運動이 季節氣候의 陰陽盛衰를 形成하고 人體와 서로 適應하여 陰陽消長이 變化를 出現한다. 《素問·水熱穴論》에 指出한 것은 一年 春夏秋冬의 更迭과 人體內의 陽氣가 작았다가 盛해지고 다시 衰少해지며 陽氣가 漸少해지면 陰氣가 初盛으로부터 堅盛해지는 陰陽消長變化이다. 이러한 種類의 變化가 비록 극히 미세하지만 도리어 往往 脈象上에 가히 反映되어 나올수 있다. 하루의 오는 것에 나아가면 日月의 運轉에 따르게 된다. “平旦人氣生 日中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는 하루안에서 人體陽氣의 動靜變化이다.

《內經》에서는 도리어 氣候의 寒熱이 人體에 대하여 影響이 있다는 것을 指出했다. 《靈樞·歲露論》과 《靈樞·刺節眞邪》에서는 매우 精辟한 論述이 있는데 氣候가 溫熱한 때는 陽氣가 쉽게 發泄하고 腠理가 疏松하며 쉽게 땀이 나고 氣候가

寒涼한 때는 陽氣가 收藏하고 腠理가 緻密하며 少汗 多尿등이 있게 된다. 이러한 人體內 陰陽相應의 變化는 天體運行과 時間氣候變化가 人體功能과 더불어 節律的인 相應이 있음을 說明한다.

이외에 《素問·異法方宜論》에서는 도리어 地域의 不同과 地勢의 高下가 人體에 대하여 重要한 影響이 있다고 認識했다. 現在 人間은 아울러 人體內 許多한 化學元素의 含量과 地殼中の 平均含量이 基本的으로 一致하고 있음을 이미 發現했다. 또한 某一種元素가 不同한 地域에 分布한 不均衡性이 있고 相應地는 地區人體上에 表現되어 나온 缺少나 或은 過多를 說明하고 이것은 사람의 生理 狀態와 發病에 대하여 明顯한 影響이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사람이 하나의 小天地가 되고 天地와 더불어 造化를 같이 함을 밝혔다. 并上并下는 本乎天者는 親上하고 本乎地者는 親下⁴⁹⁾함을 이룸이니 이에 陰陽自然의 性이 된다. 身中の 陰陽이 不足한 곳에 外邪가 虛를 틈타 侵入하는데 邪를 받음이 上에 있으면 右側이 甚하고 아래에 있으면 左側이 甚하니 이는 天地에 偏缺하여 穩固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니 사람도 또한 같아서 邪氣가 얻어 虛를 틈타 居하게 된다. 다만 그 偏缺한 것은 본래 陰陽升降流行의 自然之序에 말미암아 그 分布循環하여 生化가 自調하게 된다.

7. 自然變化和 疾病의 關係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故 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解散 此爲自傷氣之削也⁵⁰⁾

蒼天之氣 不得無常也 氣之不襲 是謂非常 非常則變矣…… 變至則病 所勝則微 所不勝則甚 因而重感於邪則死矣 故非其時則微 當其時則甚也⁵¹⁾

五氣更立 各有所勝 盛虛之變 此其常也…… 帝曰 何謂所勝? 岐伯曰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得五行時之勝 各以氣命其臟 帝曰 何以知其勝? 岐伯曰 求其至也 皆歸始春 未至而至 此謂太過 則薄所不勝 而乘所勝也 命曰氣淫 至而不

48) 《素問·五常政大論》

49) 《周易·乾卦 文言》 聖人이 作而萬物이 親 하나니 本乎天者는 親上하고 本乎地者는 親下 하나니 則各從其類也니라.

50) 《素問·生氣通天論》

51) 《素問·六節藏象論》

47) 《素問·陰陽應象大論》

至 此謂不及 則所勝妄行 而所生受病 所不勝薄之也 命曰氣迫 所謂求其至者 氣至之時也 謹候其時 氣可與期 失時反候 五治不分 邪僻内生 工不能禁也⁵²⁾

帝曰 至而不至 未至而至 如何? 岐伯曰 應則順 否則逆 逆則變生 變則病 帝曰 善 請言其應 岐伯曰 物生其應也 氣脈其應也⁵³⁾

黃帝曰 余聞十二經脈 以應十二經水者 其五色各異 清濁不同 人之血氣若一 應之奈何? 岐伯曰 人之血氣 苟能若一 則天下爲一矣 惡有亂者乎? 黃帝曰 余問一人 非問天下之衆 岐伯曰 夫一人者 亦有亂氣 天下之衆 亦有亂人 其合爲一耳⁵⁴⁾

天氣 清淨光明者也 藏德不止 故不下也 天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雲霧不精 則上應白露不下 交通不表 萬物命故不施 不施則名木多死 惡氣不發 風雨不節 白露不下 則莠蕪不榮 賊風數至 暴雨數起 天地四時不相保 與道相失 則未央絕滅 唯聖人從之 故身無奇病 萬物不失 生氣不竭⁵⁵⁾

天有寒暑 人有虛實⁵⁶⁾

冬病在陰 夏病在陽 春病在陰 秋病在陽⁵⁷⁾

冬傷于寒 春必溫病⁵⁸⁾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 爲病溫 後夏至日者 爲病暑⁵⁹⁾

東風生于春 病在肝 俞在項 南風生于夏 病在心 俞在胸脇 西風生于秋 病在肺 俞在肩背 北風生于冬 病在腎 俞在腰股 中央爲土 病在脾 俞在脊 故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藏 秋氣者病在肩背 冬氣者病在四肢 故春善病飢餓 仲夏善病胸脇 長夏善病洞泄 寒中 秋善病風癘 冬善病痺厥⁶⁰⁾

病在肝 愈於夏 夏不愈 甚於秋 秋不死 持於冬 起於春 禁當風 肝病者 愈在丙丁 丙丁不愈 加於庚辛 庚辛不死 持於壬癸 起於甲乙 肝病者 平旦慧 下晡甚 夜半靜…… 病在心 愈在長夏 長夏不愈 甚於冬 冬不死 持於春 起於夏 禁溫食熱衣 心病者 愈在戊己 戊己不愈 加於壬癸 壬癸不死 持於甲乙 起於丙丁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 病在脾 愈在秋 秋不愈 甚於春 春不死 持於夏 起於長夏 禁溫食飽食 濕地濡衣 脾病者 愈在庚辛 庚辛不愈 加於甲乙 甲乙不死 持於丙丁 起於戊己 脾病者 日昃慧 日出甚 下晡靜…… 病在肺 愈於冬 冬不愈 甚於夏 夏不死 持於長夏 起於秋 禁寒飲食 寒衣 肺病者 愈在壬癸 壬癸不愈 加於丙丁 丙丁不死 持於戊己 起於庚辛 肺病者 下晡慧 日中甚 夜半靜…… 病在腎 愈

在春 春不愈 甚於長夏 長夏不死 持於秋 起於冬 禁犯焠煖熱食 溫炙衣 腎病者 愈在甲乙 甲乙不愈 甚於戊己 戊己不死 持於庚辛 起於壬癸 腎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晡靜⁶¹⁾

夫百病者 多以旦慧晝安 夕加夜甚 何也? 岐伯曰 四時之氣使然 黃帝曰 願聞四時之氣 岐伯曰 春生夏長 秋生冬長 是氣之常也 人亦應之 以一日分爲四時 朝則爲春 日中爲夏 日入爲秋 夜半爲冬 朝則人氣始生 病氣衰 故旦慧 日中人氣長 長則勝邪 故安 夕則人氣始衰 邪氣始生 故加 夜半人氣始藏 邪氣獨居于身 故甚也 黃帝曰 其時有反者何也? 岐伯曰 時不應四時之氣 臟獨主其病者 是必以臟氣之所不勝時者甚 以其所勝時者起也 黃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順天之時 而病可與期 順者爲工 逆者爲粗 黃帝曰 善⁶²⁾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塩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塩者勝血 故其民皆黑色疏理 其病皆爲癰瘍⁶³⁾

西方者 金玉之域 沙石之處 天地之所收引也 其民陵居而多風 水土剛強 其民不衣而褐荐 其民華食而脂肥 故邪不能傷其形體 其病生於內⁶⁴⁾

北方者 天地所閉藏之域也 其地高陵居 風寒冰冽 其民樂野處而乳食 臟寒生滿病⁶⁵⁾

南方者 天地所長養 陽之所盛處也 其地卑 水土弱 霧露之所聚也 其民嗜酸而食脂 故其民皆致理而赤也 其病變痺⁶⁶⁾

中央者 其地平以濕 天地所以生萬物也衆 其民食雜而不勞 故其病多痿厥寒熱⁶⁷⁾

四季氣候의 正常變化는 人體가 능히 適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秩序를 잃고 正常에 反對되던 人間의 適應能力을 지나치게 되어 就會하여 人

53) 《素問·六微旨大論》

54) 《靈樞·陰陽清濁》

55) 《素問·四氣調神大論》

56) 《素問·寶命全形論》

57) 《素問·金匱真言論》

58) 《素問·生氣通天論》, 《素問·陰陽應象大論》

59) 《素問·熱論》

60) 《素問·金匱真言論》

61) 《素問·藏氣法時論》

62)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63) 《素問·異法方宜論》

64) 《素問·異法方宜論》

65) 《素問·異法方宜論》

66) 《素問·異法方宜論》

67) 《素問·異法方宜論》

52) 《素問·六節藏象論》

間에게 疾病을 생기게 한다. 季節이 이르지 않았는데 氣候가 이미 變化하면 太過가 되어 “氣淫”에 이르게 되고, 季節이 이미 왔는데 氣候가 아직도 때의 變化에 應하지 않으면 不及이 되고 “氣迫”에 이르게 된다. 氣淫과 氣迫은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疾病을 發生시키게 된다. 그래서 內經에서는 尙尙히 人間에게 告하여 警戒하는데 “虛邪賊風 避之有時” “謹候有時 氣可與期 失時反候 五治不分 邪僻內生 工不能禁也”라 하였다.

季節不同이 일으키는 疾病으로부터 다만 病證에서 뿐만 아니라 病性上에서도 다름이 있고 또한 病位上에서도 不同하다. “冬病在陰 夏病在陽”, “春氣者 病在頭”, “東風生于春 病在肝” 등과 같은 것이다. 이외에 病情의 演變이 一日의 中에 있어서 時間의 早晚과 더불어 一定한 關係가 있으니 “朝即人氣始生 病氣衰 故日慧 日中人氣長 長即勝邪 故安 夕即人氣始衰 故加 夜半人氣入臟 邪氣獨居于身 故甚也”라 하였다.

內經에서는 發病 및 病情演變에 明顯한 時間規律이 있음을 認識하고 이로 因하여 “順天之時”를 強調하고 “必明天道地理 陰陽更勝 氣之先後 人之壽夭 生化之期”를 醫者에게 要求하며 아울러 “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임을 指出했다. 後世의 “子午流注”, “靈龜八法”, “四時藥法” 등은 모두 內經에 있어서 사람의 生理節律 및 病理過程과 天地陰陽四時의 相應思想 指導下에 建立되어온 것이다.

《素問·異法方宜論》에서는 도리어 인간이 居處한 바의 自然環境이 不同한 것으로부터 不同한 疾病이 있음을 指出했다. 만일 東方之處에는 海濱傍水하고 氣候가 潮濕하니 사람이 魚鹽을 많이 먹고 濕熱의 邪가 쉽게 留滯되며 瘡癰을 生하는 것이 비교적 많은 것 等等은 地理環境과 疾病이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充分히 說明한다. 이로부터 自然環境의 사람의 生理 病理에 대한 影響을 研究하는 것은 하나의 重要한 課題임을 가히 볼 수 있다.

8. 人肖天地

且天地之形 如卵橫臥於東南西北者 自然之勢也 血氣運行故 始於手太陰 終於足厥陰 帝曰 地之爲下 否乎 岐伯曰 地爲人之下 太虛之中也 曰憑乎 曰大氣舉之也 是地如卵黃在其中矣 又曰 地者所以載生成之形類也 易曰 坤厚載物 德合無疆 信乎天之包地 形如卵焉 故人首之上爲天之天 足之下爲地之天 人之浮於地之上 如地之浮於太虛之中也 地之西 始於

寅終於丑 血之東 根於辛納於乙 相隨往來不息 獨缺於乾巽 爲天地之門戶也 啓玄子云 戊土屬乾 己土屬巽 遁甲曰 六戊爲天門 六己爲地戶 此之謂也 經云 天地者 萬物之上下 左右者 陰陽之道路 氣血者 父母也 父母者 天地也 血氣周流於十二經 總包六子於其中 六氣五行是也 無形者包有形 而天總包地也 天左行而西氣隨之 百川并進而東血隨之⁶⁸⁾

또한 天地의 形은 卵이 東南西北에 橫臥한 것과 같은 自然之勢인데 血氣가 運行하는 故로 手太陰에서 시작하여 足厥陰에서 끝나게 된다. 帝가 가로대 地의 아래는 없습니까? 岐伯이 가로대 地는 사람의 아래요 太虛의 가운데입니다. 가로대 의 지하고 있습니까? 가로대 大氣가 들고 있습니다. 이는 地가 卵黃이 그 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가로대 地라는 것은 실어 生成하는 形類인 바라 하였다. 易에 가로대 坤厚載物 德合無疆⁶⁹⁾이라하니 天이 地를 싸고 있고 形이 卵과 같은 것을 믿을만하다. 故로 人首의 上은 天之天이요 足의 下는 地之天이니 人이 地之上에 浮하니 地가 太虛의 中에 浮한 것과 같다. 地의 西는 寅에서 시작하고 丑에서 끝나고 血의 東은 辛에서 根하고 乙에서 納하여 서로 따라서 往來하여 盈이 없으나 홀로 乾巽에서만 缺하였으니 天地의 門戶가 된다. 啓玄子⁷⁰⁾가 이르기를 “戊土는 乾에 屬하고 己土는 巽에 屬한다”라 하였고, 遁甲에 이르기를 “六戊는 天門이 되고 六己는 地戶가 된다”고 하니 이것을 이름이라. 經에 이르대 天地는 萬物의 上下가 되고 左右는 陰陽의 道路가 되고 氣血은 父母이고 父母는 天地이니 血氣가 十二經을 周流하여 그 가운데에 六子를 모두 싸니 六氣五行이 이것이다. 無形은 有形을 싸니 天이 地를 모두 싸는 것이요 天이 左行함에 西氣가 隨하고 百川이 并進함에 東血이 隨한다.

9. 天地人物氣候相應說

經十二 絡十五 凡二十七 氣血 相貫 無有休息 故一歲 陰陽升降 會於立春 一日 陰陽 晝昏 會於寅時 榮衛循環 上應天之度數 下應地之分野 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 宿謂二十八宿 度謂天之三百六十

68) 《此事難知·人肖天地》

69) 《周易·坤卦 彖傳》彖曰 至哉라 坤元이여. 萬物이 資生하나니 乃順承天이니 坤厚 載物이 德合無疆하며…….

70) 王氷의 號. 唐代에 太醫令 벼슬을 지냈으므로 王太僕이라고도 한다.

五度也 經水者 謂海水 清水 渭水 湖水 沔水 汝水 江水 淮水 溧水 河水 漳水 濟水也 以其內合經脈故名之曰 經水焉 經脈者 謂手足三陰三陽之脈 所以言者 以內外參合 人氣應之 故言及也 內足陽明 外合海水 內足太陽 外合清水 內足少陽 外合渭水 內足太陰 外合湖水 內足厥陰 外合沔水 內足少陰 外合汝水 內手陽明 外合江水 內手太陽 外合淮水 內手少陽 外合溧水 內手太陰 外合河水 內手心主 外合장水 內手少陰 外合濟水 內外輸應 氣衛於外 以充皮膚 血榮於中 以營經絡 周一體而無間 應漏水百刻而不違 一日一夜 一萬三千五百息 乃平人之常也 察陰陽 決生死 雖經絡 流注 如環之無端 豈能逃於脈之三部耶 至於草木昆蟲 盡皆得氣之先 所以雖乾枯陳朽 亦可以調臟腑以治疾病 其氣同也學者 玩之⁷¹⁾

經十二의 絡十五의 무릇 二十七은 氣血이 서로 피똥어 休息함이 있지 않다. 故로 一歲의 陰陽升降이 立春에서 모이고 一日의 陰陽은 曉昏에 寅時에 모이며 榮衛의 循環은 위로 天의 度數에 응하고 아래로 地의 分野에 응한다. 天에 宿度가 있고 地에 經水가 있고 人에 經脈이 있으니 宿은 二十八宿을 말하고 度는 天의 三百六十五度를 말하며 經水는 海水 清水 渭水 湖水 沔水 汝水 江水 淮水 溧水 河水 漳水 濟水를 말하여 그 內로 經脈에 합하는 故로 經水라 이름하였다. 經脈는 手足三陰三陽之脈을 이름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內外가 서로 合함에 人氣가 應함이라 故로 말이 이르게 된다. 內足陽明은 外合海水하고 內足太陽은 外合清水하고 內足少陽은 外合渭水하고 內足太陰은 外合湖水하고 內足厥陰은 外合沔水하고 內足少陰은 外合汝水하고 內手陽明은 外合江水하고 內手太陽은 外合淮水하고 內手少陽은 外合溧水 하고 內手太陰은 外合河水하고 內手心主는 外合漳水하고 內手少陰은 外合濟水하야 內外的 輸가 應함이라. 氣는 衛於外하야 皮膚를 充하고 血은 榮於中하야 經絡을 營하야 一體를 두루하여 사이가 없고 漏水百刻에 응하여 어김이 없다. 一日一夜에 一萬三千五百息은 이에 平人의 常이니 陰陽을 察하고 生死를 決斷하는 비록 經絡이 流注하야 環처럼 끝이 없으나 어찌 능히 脈의 三部에서 逃하리오 草木昆蟲에 이르러서도 모두 다 氣의 먼저함을 얻으니 그래서 비록 乾枯陳朽라도 또한 가히 써 臟腑를 調하여서 疾病을 치료함은 그 氣가 같은 것이니 學者는 玩할 것이니라.

10. 人身小天地

小天地라 함은 天地의 縮小版이 사람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肉體 骨格 氣血 筋脈의 構造와 四體의 動作과 精神의 作用이 天地의 形體와 恰似하고 陰陽의 動靜에 符合해서 天地의 縮小版임이 틀림없고 天의 子임이 證明된다.

天은 無形이고 地는 有形이니, 無形은 人身의 氣로 나타나고 氣는 다시 脈으로 나타나고, 有形은 血로 나타나고 血은 다시 筋肉動作으로 나타나서 氣의 衰旺으로 天의 消息을 알 수 있고, 血의 虛實로 地의 寒熱을 알 수 있다.

모든 醫書에 사람의 肉體의 構造를 論評해서, “동근머리는 天을 모방하고 네모난 발은 地를 모방하였으며 兩目は 日月을 形象하고 四肢는 四時를 體로하고 十二經脈은 一年十二月을 形象하고 三百六十五骨節은 一年三百六十五日을 形象하였으며, 頭髮은 林木이고 兩眉는 遠山이며 面은 五岳이요 口는 江이고 耳는 湖水이다.”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小天地를 證明하기에는 너무 不足하다.

해가 떠서 낮이 되면 動하고 해가 저서 밤이 되면 靜하니 天地의 晝夜를 形象하고, 怒하면 소리를 치니 雷霆을 形象하고, 喜하면 웃으니 日出을 形象하고, 추우면 小便이 數하니 寒水의 下降을 意味하고, 더우면 呼吸이 急하니 火炎의 上升을 意味하고, 熱하면 面赤하니 太陽의 赤熱을 象徵하고, 寒하면 面黑하니 疼에 山野의 變黑을 가리킨 것이요, 濕하면 몸이 무거우니 濕土의 무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燥하면 살결이 터지고 입술이 갈라지니 秋節에 濕氣가 없음을 말함이며, 風을 맞으면 四肢가 떨리고 심하면 角弓反張이 되니 風은 흔들고 뒤집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熱하면 小便이 濁하니 夏水는 汚濁함을 말하는 것이요, 寒하면 小便이 清하니 疼水는 清함을 가리키는 것이며, 熱한 飲食은 얼굴에 熱이 나니 火氣는 上에 모임을 말함이고, 冷한 飲食은 泄瀉가 나니 冷은 水에 속하고 水는 내려감을 말함이니 이 모든 動作의 하나 하나가 天地의 陰陽伸縮과 動作에 符合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11. 臟腑의 構造로 본 小天地

肺는 天을 象徵해서 最高位에 자리 잡아서 四藏을 덮고 있고 肺葉에 二十四孔이 뚫어져서 그 구멍으로 二十四氣가 交代로 드나든다.

大腸은 肺의 配匹로 最下部에 位置해서 二十一尺의 길이로 上二數는 天을 象徵하고 下一數는 地

71) 《醫學入門》

를 象徵해서 肺가 신선한 天氣를 받아서 大腸으로 傳하면 大腸은 이 天氣를 받아서 濁氣로 化하여 地로 放出하므로 天氣가 地氣와 通함을 證明하니, 이러한 關係로 모든 藏府가 다 같이 붙어 있으나 오직 肺大腸과 心小腸만이 南北으로 갈라져 있어서 거리가 심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 즉 肺는 五藏의 天으로 外部의 天과 接觸하기 위하여 上에 位置하고 大腸은 天氣를 받아서 地에 放出하므로 地氣와 通하기 위해서 下에 位置한다.

心은 熱을 主하고 天熱을 象徵해서 七竅과 三毛가 있으니 七數는 火의 成數를 나타내고 三毛는 天地人 三才를 象徵해서 사람이 天地와 同等한 地位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니 이리므로 君主之官이 되어서 五藏을 支配하고 君은 百姓의 父母요 父母는 子息을 살려야 하므로 血을 만들어 脈을 통해서 一身內外에 공급한다.

小腸은 心의 配匹로 心이 해야 할 모든 心의 일을 小腸이 맡아서 하게되니 高張의 卦(曲)가 十六으로 總長이 三十二尺이니 三과 二의 合인 五數는 火土同胞를 밝힌 것이고 三十은 一月의 日數를 表한 것이며, 十六曲은 五藏六府를 八卦로 區劃한 것이니 藏府로는 下一二曲은 腎, 上一二曲은 心, 下三四曲은 肝, 上에서 下로 三四曲은 肺, 下五六曲은 膽, 上에서 下로 五六曲은 心包, 下七八曲은 脾, 上에서 下로 七八曲은 胃이며 八卦로는 下에서부터 一二曲은 坎, 上에서 下로 一二曲은 離, 下三四曲은 肝, 上三四曲은 坤, 下五六曲은 震, 上에서 下로 五六曲은 兌, 下에서 上으로 七八曲은 巽, 上에서 下로 七八曲은 乾이다. 小腸이 心君의 일을 행해야 하므로 上記와 같이 五藏의 部序를 만들어서 陰陽의 表現은 易卦에 依存하므로 八卦로 區劃을 定한 것이니 心小腸이 天氣의 主幹임을 證明한다.

肝은 木을 象徵해서 左三葉 右四葉으로 나무잎이 左右로 갈라져서 附着함을 象徵하고 四는 肺金數요 三은 肝木數로 金과 木이 相對로 位置해서 肺氣는 肝으로 들어가고 肝氣는 肺로 들어가서 東에서 해가 뜨면 西쪽이 밝고 西쪽에 해가 지면 東쪽이 밝음을 表現한다.

膽은 肝의 配匹로 上下에 구멍이 없고 속에 黃色金精을 貯藏해서 귀중하게 쓰임을 意味하고 三兩의 重量은 肝木을 助해서 風木을 主함을 意味하고 手足의 爪甲을 助하니 손가락 발가락이 나무의 가지를 象徵해서 《難經》에 '風淫末疾'이라하여 風의 邪氣는 手足끝이 病이 된다 한것이 膽을 가

리킨 것이다.

脾는 中央土로 모양이 馬蹄(말발)처럼 생겨서 半月形으로 너비가 三寸 길이가 五寸이어서 總坪數가 十五平方寸의 面積을 갖고 있으니 五는 土의 生數 十은 土의 成數를 나타낸 것이니 地는 平坦을 主로 하므로 脾의 形象이 平扁하다.

胃는 脾의 配匹로 水穀을 받아들여서 小腸 大腸으로 傳送시키는 途中에 水分은 膀胱으로 들어가서 小便이 되고 穀物은 大腸으로 들어가서 大便이 되니 水穀이 化해서 大小便이 되는 造化는 神의 作用이 아니면 도저히 可能할 수 없다.

胃의 너비가 一尺五寸이고 길이가 二尺六寸으로 總面積이 三·九平方尺이며 七斗의 水穀을 貯藏할 수 있어서 三斗五升은 항상 胃中에 蓄積되어 있고 三斗五升을 새로 받아들이고 三斗五升을 小腸으로 輸送시키니 三斗五升의 水穀이 胃의 調和體이다. 五七三十五로 五七이 火土同胞로 胃가 純陽임을 밝히고 一尺五寸과 二尺六寸이 水土와 水火를 表明해서 胃가 五味를 전부 다 받아들이니 그 중에서도 水土火의 三味를 主로 받아들인다.

腎은 五藏중에서 最下에 位置해서 地를 象徵하고 兩個가 나란히 붙어 있어서 左는 腎으로 水를 主하고 右는 命門으로 火를 主해서 腎水는 左로 돌아서 肺로 올라가니 地氣上升을 말함이며 命門火는 右로 돌아서 心으로 들어가니 腎相火의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膀胱은 腎의 配匹로 上部에 구멍하나가 있을 뿐이며 他面에는 전부 구멍이 없고 小便을 放出할 때에는 膀胱의 단독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肺의 힘을 빌어서 放出하니 肺는 實하면 위로 들리고 虛하면 아래로 쳐져서 위로 들리면 膀胱을 누르지 못하고 아래로 쳐지면 膀胱을 누르나 膀胱을 누르면 小便이 通하고 누르지 못하면 小便이 通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肺氣가 實하면 小便이 不通하고 肺氣가 虛하면 小便數 또는 遺尿가 되니 이것이 天氣는 地로 通하고 地氣는 天으로 通하는 證明이다.

肉體는 陰으로 地를 象徵한다. 地는 天氣를 順從하므로 天氣의 變化에 따라서 肉體에 變化가 생하며 地는 靜하고 動하지 못함에 반하여 肉體는 動하니 이 動하는 것은 天의 作用이고 肉體의 모양을 구성된 것은 地의 作用이다.

皮膚는 地表를 상징하고 地表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고 草木의 새싹이 뚫고 나오며 사람의 皮膚에 腠理가 있어서 무수한 細孔에 털이

나와 있으니 완전한 地의 縮小形이다.

上에 耳目口鼻의 七竅(일곱개의 구멍)가 있고 下에 前陰과 後陰의 二竅(두구멍)이 있으니 兩目は 日屈(해돋는 굴)과 月屈(달돋는 굴)을 象徵하고 兩鼻孔은 海水의 朝夕出入을 象徵하고 口는 海를 象徵하고 兩耳는 南北의 長江을 表現하고 下二陰은 海底의 尾閭穴을 象徵케 한다.

尾閭穴은 海底에 있는 신비한 구멍으로 海水가 이 구멍에 의해서 消滅된다. 그러므로 세계의 수많은 江물이 한 바다로 들어가도 절대로 海水의 量이 增加됨이 없음을 보아도 이 尾閭穴을 따라서 海水가 消滅됨을 알 수 있다.

《靈樞·邪客篇》《靈樞·海論》《此事難知》《醫學入門》《醫學輯要》등에서는 天地와 人間사이의 對應關係를 말하였으니 天圓地方하니 人은 頭圓足方하며, 天에 日月이 있으니 人은 兩目이 있고, 바다에 東西南北의 四海가 있으니 사람도 또한 髓海 血海 氣海 水穀之海의 四海가 있고, 地에 十二經水가 있으니 人도 또한 十二經脈이 있으며, 《此事難知》에서 人身의 氣血을 天地에 比喩한 것과 《醫學輯要》에서 臟腑의 構造를 天地로 把握한 점은 獨특하다 하겠다. 그리고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寶命全形論》, 《素問·生氣通天論》, 《素問·六節藏象論》, 《靈樞·歲露論》등에서는 天地 自然의 變化에 의해 人間이 生存하고 相應하는 整體性이 보이며, 《素問·四氣調神大論》, 《素問·金匱真言論》, 《素問·藏氣法時論》, 《素問·異法方宜論》등은 自然의 變化에 의해 發生하는 疾病의 樣相에 대하여 詳細히 記述하고 있다.

III. 結 論

《內經》에서 말한 “人間은 天地에 相應한다”고 한 것은 陰陽五行의 觀點으로 사람과 自然의 不可分의 關係를 말하였는데, 이것은 天地와 人間 사이의 象數의 側面에 의한 單純한 取象比類로부터 나아가 自然의 變化가 人體의 生命活動이나 機能에 影響을 줄때 人體는 반드시 이에 相應하는 反應을 일으키게 되며, 이에 適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疾病이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1. 《靈樞·邪客篇》이나 《醫學入門》에서 말한 天圓地方 頭圓足方,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十二經水 人有十二經脈의 關係는 陰陽五行의 理致에

따른 天人相應의 發端을 말한 것으로 取象比類에 해당한다.

2. 《素問·寶命全形論》에 “人間은 天地의 氣로 태어나서 四時의 法으로 成長한다.”고 言及하였으니, 人間이 大自然의 作用에 依存하지 않고는 生命을 維持할 수 없으며, 또한 四季의 生長收藏이라는 自然의 規律에 順應하여 生命活動의 過程을 完成하는 것이니 天地와 人間의 不可分의 關係를 말하였고, 《靈樞·五癯津液別》에서는 “더우면 汗出이 되고 추우면 小便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氣候의 變化에 따라서 人體의 適應機能이 變하는 것을 말하였다.

3. 人間은 季節의 不同으로부터 疾病이 發生하여 病證이나 病情의 差異가 있고, 또한 하루중에서도 時間에 따른 差異가 發生하며, 《素問·異法方宜論》에서는 사람이 居處한 自然環境의 差異에 따라서 사람의 體質과 人體에 생기는 疾病이 相異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人間과 自然界가 相應한다는 理論은 韓醫學의 全般的인 理論體系에 主要한 部分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實際 臨床이나 養生과 豫防에 대해서도 主要한 影響을 끼치는데, 이러한 理論에서 臨床까지 一貫된 韓醫學의 理論體系에서 “天人相應”의 思想이 具體的으로 反映되어 있다.

參 考 文 獻

1. 梁運通: 黃帝內經類析, 內蒙古出版, 1986.
2. 章南虛谷: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3. 李正來: 太韓醫學全集(一), 第一文化社, 1989.
4. 宋点植撰: 醫學輯要, 大耕出版社, 1992.
5.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6. 金完熙: 韓醫學原論, 成輔社, 1990.
7. 姜孝信: 東洋醫學概論, 高文社, 1989.
8. 中國醫學大系 此事難知(人肖天地).
9. 黃武淵: 韓醫學과 人體의 신비, 고려의학, 1993.
10. 周易正音, 洪易學會編輯部, 1991.
11. 李挺: 編註醫學入門, 大成文化社, 1990.
12.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